장애인 포교 20년 보리수아래 '더불어 함께'

10월 21일, 창립 20주년 공연
자작시 낭송 · 음악 연주로 감동
최명숙 대표 "서로 도우며 발전"


보리수아래는 10월 21일 서울노인복지센터 TOP작은공연장에서 장애인포교 2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공연 '보리수아래 스무살 청년되어 노래하다' 를 개최했다. 공연 후 동참자들이 단체사진을 찍으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장애불자들의 모임 보리수아래(회장 최명숙)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장애인 포교의 새로운 길을 다지며 함께 달려온 서로를 격려하는 법석을 마련했다.

보리수아래는 10월 21일 서울노인복지센터 TOP작은공연장에서 장애인포교 2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공연 '보리수아래 스무살 청년되어 노래하다'를 개최했다. 조계종과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조계종장애인전법단이 후원한 이번 공연은 장애인포교 20주년을 맞아 '더불어 함께'하는 기념공연으로 진행됐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20년간 보리수아래와 함께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의 길을 열정과 실천으로 걸어온 장애불자, 음악인, 작가 모두가 이날의 주인공이 됐다. 이날 장애인 불자들은 자신의 삶과 수행 이야기를 자작시와 음악 연주에 아름답게 담아냈다. 또 다양한 예술인들이 동행, 세상에 위로와 희망을 전해 감동을 더했다.

본격적인 공연에 앞서 각계각층에서 보리수아래의 20살을 축하했다. 조계종 포교부장 정무 스님은 포교국장 도진 스님이 대독한 격려사에서 20년 동안 장애를 넘어 서로의 마음을 잇고 부처님 자비와 지혜를 실천해 온 보리수아래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도 "앞으로도 장애와 비장애 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비의 공동체로 더욱 깊고 넓게 자라나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발달장애인 피아니스트이자 국악인 최준 씨의 여는 음악으로 공연의 문이 활짝 열렸다. 보리수아래 회원으로 언어장애가 있는 중증중복장애인 유재필 시인은 휠체어를 타고 이주연 도서출판 해조음 대표의 도움으로 축시 '부처님 씨앗'을 낭송해 관객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함께한 오시우 씨의 피아노 선율은 감성을 자극했다.

이어 이종만 좋은벗 풍경소리 대표는 동행의 노래 '그대 잠시만이라도 장돌뱅이'를, 개화사 호선회 회장 조남선 시인은 동행의 축시 '성(聖)스러운 것'을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장애불자 시 낭송도 이어졌다. 고명숙 보리수아래 회원은 김귀순 장애인활동자원사의 도움으로 '어떤 모빌'을, 홍현승 회원은 김영길 서울노인복지센터 시와수필의만남 동아리 김영길 씨의 도움으로 '다시 태어나도 우린'을 읊어 내려 동참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황상미 소프라노가 축하의 노래를, 명상음악가 범중 스님과 최준 피아니스트는 불심 하모니 '아리랑 한송이 꽃'을 선보였다. 서울노인복지센터 통기타 동아리의 우정의 노래 '만남'에 이어 법련사 불일 합창단과 국제포교사 합창단, 위즈덤더원 합창단 연합인 보리수합창단이 '너와 나', '어느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를 동행의 노래로 전하며 공연의 대미를 장식했다.

최명숙 대표는 "보리수아래가 40살, 60살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많이 돕고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면서 발전해 나가겠다"면서 "회원들이 진정한 수행자가 돼 불법을 마음으로 전달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리수 아래는 2005년 6월, 전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의 제안으로 결성됐다. 문화예술에 재능이 있고 불교문화에 관심 있는 장애인들이 문학, 음악, 미술 등 문화예술 활동과 포교활동을 하고 있다. △매주 셋째주 토요일 월례법회 △장애인불자 위한 포교활동 및 신행활동 지원 △장애인 예술창작 및 발표기회 제공 △문화예술 교육 △개인작품집출판 지원 및 음반제작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템플스테이 및 해외 불교문화 탐방 △아시아 장애인 교류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02-959-2611

후원 : 하나은행 163-910009-28505 보리수아래



친구와 놀면서 명상을 배워요

동국대 RISE미래키움운영센터(센터장 전미경)와 종학연구소(소장 정도 스님)는 서울시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어린이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은석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다양한 명상 수업을 진행했다. 오감 활용 명상과 음악·신체 활동 기반 놀이 명상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호평을 받았다.

글= 신중일 기자 · 사진 제공=동국대

인천경기 포교사들, 구릉산 묵언행선

10월 18일, 구리 보현사 일대서
80여 포교사 수행 의미 되새겨



조계종 포교사들이 무언 속 행선 수행하며 선명상의 의미와 수행의 가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조계종 포교사단 인천경기지역단(단장 백순심)은 10월 18일, 구리 보현사(주지 진효 스님) 일대에서 선명상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보현사 주지 진효 스님을 비롯해 포교사 80여 명이 참여했다. 포교사들은 보현사 숲길을 따라 구릉산 별하공원까지 약 1시간 동안 묵언 속에 걷는 행선 수행을 진행했다. 숲길 속 자연의 숨결과 함께 마음을 비우고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하는 가운데 내면의 평온을 느끼며 수행의 의미를 되새겼다.

묵언행선 후에는 진효 스님이 직접 선명상의 의미와 수행의 가치를 전하는 법문을 이어갔다.

이날 진효 스님은 법문에서 '해사모단탄거해(解使毛端呑巨海), 능장개자납수미(能將芥子納須彌)'라는 십육나한 중 첫 번째 빈두로 존자의 게송을 인용해 "우리 눈썹 끝의 이슬방울에도 바다가 깃들어 있고, 겨자씨 속에도 수미산을 담을 수 있다"며 "오늘의 걷기명상 수행이 훗날 선업의 결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종단의 '선명상 대중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포교사단은 전국 각 지역단에 지역의 특성과 수행 환경에 맞는 선명상 행사를 권고했고, 이에 인천경기지역단이 구리 보현사에서 이번 걷기대회를 개최해 많은 포교사들의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임은호 기자

노인 위기상담 불교계가 나선다

불교상담개발원, 24개 기관 함께
생명존중문화 확산 업무협약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종봉 스님)은 10월 20일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조계종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 및 산하 24개 노인복지기관과 함께 '노인 위기상담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번 협약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신노년층을 중심으로 고독, 우울, 관계 단절 등 정신건강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 기관들은 노인 자살예방과 위기상담 서비스 확대, 상담 전문인력 양성, 인식개선 활동 및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은 "초고령사회에 당면한 지금은 예방보다 실질적인 지원과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어르신 복지를 위해 각 기관의 열정에 보답하고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종봉 스님은 "복지 현장에서 어르신들과 가장 가까이 만나는 복지관과 함께 부처님 말씀을 바탕으로 어르신의 마음을 살피고, 위기 속에서도 자신이 존중받는 존재임을 느낄 수 있도록 상담과 교육을 통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불교상담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국 노인복지시설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불교상담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노인심리상담 및 교육, 자살예방교육, 명상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은호 기자

팔도장터관광열차 타고 가을 템플스테이

문화사업단, 코레일관광개발
4개 지역 사찰, 장터 여행

지난 3월과 6월에 운영됐던 템플스테이 기차여행이 11월에도 찾아온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은 "코레일관광개발(대표이사 권백신)과 함께 11월 1일 서울역에서 팔도장터관광열차를 타고 출발하는 당일형 '템플스테이 테마 기차여행' 상품을 운영한다"고 10월 20일 밝혔다.

이번 기차여행은 경부선을 따라 △반야사(충북 영동) △법주사(충북 보은) △신안사(충남 금산) △동화사(대구) 등 총 4개 사찰에서 차담, 유기농 쿠킹, 걷기 명상, 단주 만들기 등 템플스테이 체험 후 지역 전통시장 및 인근 명소를 방문하는 코스로 구성됐다.

반야사는 '달도 머물다 가는 봉우리'라는 뜻을 지닌 월류봉과 영동 와인터널, 영동전통시장 방문을 하고, 법주사는 힐링 테마정원 청남대에서 가을을 만끽하고, 대전중앙시장으로 이동한다.

신안사는 가을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한밭수목원과 대전 시민들의 피크닉 명소로 알려진 이응노 미술관을 방문하고, 동화사는 템플스테이 체험 후 서문시장으로 이동해 지역 전통시장을 둘러보며 힐링의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문화사업단장 일화 스님은 "이번 11월 기차여행은 다가오는 가을 단풍 시기에 맞춰 가족, 친구, 연인과 일상 속 부담 없이 힐링할 수 있는 기회"라며 "지역경제를 비롯한 국내 관광 활성화에 다시 한 번 기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 상품"이라고 밝혔다.

상품 예약과 문의는 코레일 관광개발 홈페이지(www.korailtravel.com) 또는 1544-7755에서 가능하다. 신중일 기자

에드워드 리 셰프의 '행복한 밥상'

서울노인福서 소갈비찜 1천 인분
조리 · 배식 어르신과 교류 시간



에드워드 리(Edward Lee) 셰프가 어르신 세대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영양 가득 맛있는 밥상을 대접했다.

에드워드 리 셰프는 10월 17일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지웅 스님) 1층 만발식당에서 '행복한 밥상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사진〉

이번 봉사활동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넘어, 격동의 시대를 거치며 현재의 대한민국을 일궈낸 어르신 세대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에드워드 리 셰프는 한국을 향한 변치 않는 애정을 바탕으로 이날 서울노인복지센터에 후원금 5000달러(한화 약 720만원)를 전달하고, 구글 관계자와 함께 소갈비찜 1000인분을 직접 조리해 어르신들에게 대접했다. 또 조리뿐만 아니라 배식에도 직접 참여하며 어르신들과 따뜻하게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에드워드 리 셰프는 "한국에 올 때마다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난다"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갈비찜을 준비했다. 모든 어르신들이 든든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은호 기자

"금강산 내 사찰, 남북교류 가교역할 기대"

민추본, 10월 22일 연구포럼
김일한 동국대 연구교수 발제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금강산의 불교문화유산이 남북교류협력의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일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사진〉는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성행 스님, 이하 민추본)가 10월 22일 동국대 사회과학관 M308 첨단강의실에서 개최한 제2차 남북불교문화유산 교류연구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기대감을 표했다.

'원산갈마 지역의 불교문화유산과 남북 교류협력 가능성'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개발과 남북교류협력 가능성을 불교문화유산을 통해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김일한 연구교수는 '북한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개발과 남북교류협력 가능성'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최근 빈번하게 거론되고 있는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를 중심으로 불교문화유산을 살펴보고, 남북불교 교류사업으로의 연계 및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금강산에는 약 200개의 사찰과 암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와 뗄 수 없는 성지로, 원산에는 태조 이성계의 원찰인 석왕사가 있다. 즉, 원산갈마지역은 불교문화유산이 풍부한 곳이다. 올해 7월 파리에서 열린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복합유산에 등재된 금강산은 한반도 최초의 복합유산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서 복합유산은 3%뿐이라는 점에서 희소성이 매우 높다.

이날 김 연구교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권고한 '관리'에 집중했다. 김 연구교수는 "금강산의 세계유산 지위 유지를 위해서는 남한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금강산이나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를 남북이 관광협력으로 활용한다면 세계적 명소로 불리기에 손색없는 최고의 관광지역으로서의 가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포럼에서는 △원산지역의 불교문화유산(이현수 불교문화유산연구소 팀장) △원산갈마 불교역사문화의 거점 – 조선 왕실의 상징사찰 석왕사(김용태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도 발제됐다. 임은호 기자